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2호 [2009. 12] : 311~354

우고 차베스의 중남미 경영에 관한 고찰

윤 원 구*
(Yoon, Won-Koo)

<Abstract>

A Survey of Hugo Chávez's Management of Latin America

For how long time Hugo Chávez's policy could remain and continue? Chavez has a typical feature as one Latin American 'populist caudillo'. He entered politics, his opposition style and populist rhetoric served him well. Someone says, he is a dictator who has a strong desire to continue to remain in the 'centralization of power'.

He has a broad base of support, but his followers are not uneducated. If the oil price falls and the economy slumps, they may not support him anymore. The political scramble and strife are accelerated, and the polarization between the wealthy and poor can be deepening. With this socialistic principles become a problem. He chose a third path and his view is a simple nationalistic society. But people whom he appoints to his staff members are hardline socialists. Because of American politics and economical disturbances, he also has an anti-American sentiment. If oil prices fall from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recession, he will lose some

* 대구 가톨릭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zionyoon@hanmail.net

of his controlling influenc on the country. The fund of welfare policy to spend on missions decreases, the prices of commodities will get increase, and the employment structure becomes worse. The country's risk in the index 'EMBI' worses and the foreign capital supply may become more difficult. If the situation becomes eminent, people start questioning his role of power.

[Key Words: Venezuela/ Hugo Chávez/ Nationalistic Socialism / the Third way]
[주제어: 베네수엘라/ 차베스/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제3의 길]

Ⅰ. 서론

2009년 2월 2일, 우고 차베스(Hugo Rafael Chávez Frias)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취임 10년을 맞이하였다. 그가 취임한 1999년 2월 2일은 세계적으로는 멕시코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에 더하여서, 아시아 전역을 휩쓴 외환위기와 러시아 등 신경제권역의 위기가 제고되던 시기였고, 중남미에서는 70년대의 자원민족주의에 뒤이은 불황과 외채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ces)에 힘입은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다. 이날 대통령에 취임한 차베스는 볼리바리즘(Bolivarism)에 입각한 사회주의, 이른바 신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그 정치적 지평을 넓혀왔다. 이런 차베스를 혹자는 중남미를 선도하는 신사회주의의 기수로 보기도 하지만 혹자는 단순히 변형된 포퓰리즘의 정치가로 폄하하기도 한다. 어떤 주장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그 해석을 위한 전제로서 차베스

의 행보를 분석해 보려는 시도를 해 보려고 한다.

현재까지 10년에 걸친 차베스의 행보를 간략히 1~4기로 구분해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권초기인 제1기(1999년-2000년)에 그는 1998년의 대통령선거 시기에 내세운 공약과는 달리 예상외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널리 펴기보다는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Carlos Andres Perez)이래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답습하여 외자 유출방지를 위한 안배를 하였고[1], 한편 신자유주의 시절 확대된 빈부격차에서 발생한 빈민-특히 지방 빈민-의 지지를 고려하여 사회주의 정책(볼리바르 계획, Plan Bolivar 2000)도 병행하여 이른바 혼합정책(Policy Mix)을 시도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시작하였다.

제2기는 2001년에서 2003년의 시기인데, 1999년의 제헌의회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서 이후 14차에 걸친 선거에서의 승리의 초석을 깐 차베스는 동시기에 탄화수소법(Hydrocarbon Act)과 토지법을 포함한 49개조의 긴급조치를 축으로 볼리바르 미션(Mision Bolivar)이라는 이름하에 본격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2]

제3기는 2004년에서 2006년에 걸치는 시기인데, 제2기 내내 총파업과 쿠데타에 시달리던 차베스가 볼리비아 미션을 기반으로 한 빈민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본격적인 반몬로이즘(Anti-Monroeism)[3]의 기치를 든 시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첫해, 차베스의 사회주의표방에 불안을 느낀 외자는 40억 $이상 유출되었다.

2) 볼리바르 미션(Mision Bolivar)은 17개 분야(빈민층의 교육, 의료, 주거, 식품, 사회참여 etc..)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을 믿지 못한 차베스는 중앙정부와 군(軍)이 동원하여 역할을 담당시켰다.

3) 몬로이즘(Monroeism)은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몬로(James Monroe)가 밝힌 외교방침으로, 미국은 유럽 제국(諸國)이 아메리카 제국의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주장인데, 미국의 불간섭주의라고 하며 '몬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이라 하기도 한다.

기였다.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파업에 TV등 언론까지 가세한 총파업은 PDVSA(베네수엘라 석유공사)의 파업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어 발생한 군부 쿠데타가 이에 동조하지 아니한 지방 군부세력과 빈민세력의 결집에 힘입어 진압되자, 차베스는 자신감을 가짐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짙어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해외 열강과 반미국가에 대한 해외순방 및 반세계화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창설 등에 진력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를 제3기 반세계화 추진기라 할 수 있다.

또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반세계화의 기세를 높이다가, 2007년 대통령 연임제한 해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통과되지 못하여 일견 주춤하는 듯이 보였으나, 2009년 2월15일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에 성공하여 다시금 기세를 떨쳤다. 이에 더해 2008년 11월 13일 지방선거를 전후한 군부의 차베스 제거작전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개입 흔적이 드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의 신정부를 향한 미국의 우회전략으로[4] 브

<표-1>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10년 지배의 시기구분

구분	시기 구분
<제1기>	**혼합 정책기** (시장지향적 정책과 사회주의적 정책의 혼합기) (1999-2000)
<제2기>	**사회주의적 정책추진기** (2001-2003)
<제3기>	**반세계화 추진기** (2004-2006)
<제4기>	**21c형 사회주의 추진 및 대미갈등 심화기** (2007-현재)

4) 2008년 브라질 국방장관과 미 부시행정부의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와의 회동으로 미.브라질간 협력체계를 모색하자 다시금 브라질의 대국주의가 되살아났으며, 그에 따라 2004년 이래 베네수엘라가 추진하는 ALBA(Alternative Bolivariana para la America, 볼리바르 아메리카 대체시장)의 확산이 저지되었다.

라질이 친미(親美) 노선으로 전환하자 차베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은 점점 심해졌는데, 이시기, 즉 2007년부터 현재까지를 제4기인 21c형 사회주의 추진 및 대미갈등 심화기로 볼 수 있다.

이상처럼 차베스의 지배 10년을 4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그 공과를 살펴봄으로서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되어 중남미를 휘돌고 있는 사회주의 열풍을 초래하는 차베스의 등장이 어떤 연유에서 초래되었으며 향후 그의 진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논의해 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 하겠다. 이를 살펴봄에 있어 본 논문은 단지 정치경제적 기초에 주목하여 연구한 결과, 차베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현지의 여론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적절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약점을 가지게 되었는바 이는 향후의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Ⅱ. 우고 차베스의 등장과 그 배경

2.1. 역사적 배경

현재 우고 차베스는 21세기형 신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신국제질서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신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는 외견상 1930년대의 극우 파시즘(Fascism)과 대척개념으로서 소아병(Infantile Disorder)이라 불렸던 신사회주의를 연상케 한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의 기본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는 우고 차베스의 주장은 일견 전통적 사회주의와 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란 본래 협동적으로 자유평등한 사회를 형성하여 사리사욕과 타인이 지배하는 불공정 그리고 빈곤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려는 사상이나 사회운동, 사회체제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인데, 근대 이후에는 자본주의경제의 모순과 억압을 비판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특징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Capitalism)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우고 차베스는 미국을 몬로주의(Monroe Doctrine)에 입각한 제국주의적 세계자본주의로 파악하고, 그 대척개념(對蹠槪念)으로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또 우고 차베스의 경우에는 스스로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중앙집중주의식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신사회주의는 현재 러시아나 중국, 동유럽이 취하고 있는 시장사회주의(市場社會主義)도 아니며, 마르크스주의를 지역조건에 맞추어 수정한 아프리카사회주의, 혹은 전통적인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이슬람사회주의의 범주에 비견하기도 힘들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집트의 낫셀(Gamal Abdul Nasser)이 취했던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이른바 낫셀주의(Nasserism)[5]와 비견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차베스가 주장하는 신사회주의는 차베스주의(Chávezism)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차베스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반미 연대를 구축하는데 힘쓰면서 그를 위해 석유에서 얻은 부를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사상적 배경은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이라기 보다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표-2>를 작성하였다. 이는 스페인 침입기에서 현재까지의 베네수엘라 역사 구분을 간략히 시도하고, 각 시기별 주된 갈등관계의 변천을 표시

5) 낫셀주의는 부족주의적, 혹은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렇듯 성격이 모호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는 낫셀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과, 그리고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한국의 박정희 정권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다.

하고 있는 도표이다.

<표-2>에 나타난 각 시기의 주요인물은 그의 사회주의 정책과 국제연대정책에서 극명하게 표출된다. 특히 제2기, 즉 독립운동기의 위인들이 현저하게 등장한다.

<표-2> 베네수엘라 역사 구분과 시기별 갈등관계의 변천

구분	명칭(기간)	주요인물	주된 갈등관계	
			지배층	피지배층
제1기	스페인 식민기 (1526-1810)	-	페닌슐라레스, 크리오요(Criollo), 친스페인 메스티소	반스페인 메스티소, 원주민, 흑인,
제2기	독립운동기 (1810-1830)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 (Francisco de Miranda), 시몬 볼리바르 (Simon Bolivar), 안토니오 수크레 (Antonio José de Sucre)	페닌슐라레스, 친스페인 크리오요, 친스페인 메스티소	반스페인 크리오요 친스페인 메스티소, 원주민, 흑인,
제3기	혼란기 (내부갈등기) (1830-1899)	-	메스티소 출신군벌 까우디요(caudillo), 친까우디요 크리오요 친까우디요 메스티소	반까우디요 크리요오 & 메스티소, 원주민, 흑인
제4기	반외세 항쟁기 (1899-현재)	키프리아노 카스트로 (Kipriano Castro)	친미 크리오요, 친미 메스티소,	반미 메스티소, 원주민, 흑인,

베네수엘라 국기는 노랑·파랑·빨강의 3색기로서 중앙에 하양 5각별 8개가 반원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다. 이는 1806년 장군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가 이끌던 혁명군의 기를 변화시킨 것이다. 노랑은 부(富)·고귀함·사랑·권력을, 파랑은 스페인과 이 나라를 분리하는 카리브해(海)와 충성·정의·극복을, 빨강은 독립을 위해 흘린 피와 명예·용기·힘·위대함을, 그리고 8개의 별은 1811년 7월 5일 독립선언

에 서명하였던 7개 주(州)와 남미의 독립영웅 시몬 볼리바르를 나타낸다. 왼쪽으로 달리는 말은 자유를 상징한다. 국기는 1811년 제정된 이래, 1930년에 수정되었고 또 2006년에 차베스에 의해 일부 수정되였다.[6] 1822년 콜롬비아·에콰도르와 함께 속했던 옛 대(大)콜롬비아공화국(Great Colombia Republic)의 3색기와도 비슷한 형태이며, 현재의 콜롬비아·에콰도르 국기와도 유사하다.

또 독립운동시절의 최대의 영웅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는 차베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이름은 차베스의 사회주의 정책인 볼리바르 계획(Plan Bolivar 2000)과 볼리바르 미션(Mision Bolivar)에 도입되었고, 베네수엘라의 국명까지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이는 차베스가 1983년에 군대 동료들과 조직한 MBR-200 (Movimiento Bolivariano Revolucionario-200, 혁명 볼리바르 운동-200)이 독립투사 시몬 볼리바르를 본받아 몬로주의에 억압당하는 베네수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랑 콜롬비아'[7]의 재건을 모색하는 것임을 상기할 때 그 민족주의적 색채를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베스의 시몬 볼리바르에 대한 애착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시몬 볼리바르의 오른팔이었던 볼리비아 태생의 안토니오 수크레(Antonio José de Sucre)의 이름을 딴 '수크레'라는 화폐단위를 UNASUR(남미국가연합, Union de naciones Suramericanas)의 공통 화폐단위로 사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남미국가연합(UNASUR)는 유럽연합(EU)을 모방한 것이고 '수크레(Sucre)'는 EU의 화폐단위 유로(Euro)를 모방한 것이다.

---

6) 달리는 말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인데 2006년 차베스의 개정 이전에는 말의 목의 방향이 오른쪽이었으나 개정이후 왼쪽으로 변경되었다.

7)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남미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시몬 볼리바르의 뜻에 따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가 통합하여 탄생한 '그랑 콜롬비아'(Grán Columbia)는 시몬 볼리바르의 왼팔격인 부하 호세 안토니오 파에스(Jose Antonio Paez)에 의해 갈라졌다.

2.2. 정치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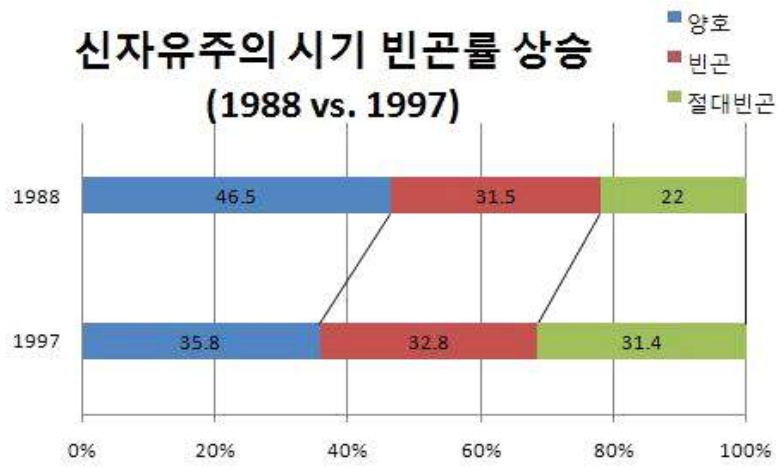
우고 차베스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표-2>의 제4기를 확장하여, <표-3> "베네수엘라 역사 제4기(반외세 항쟁기: 1899년-현재)의 대통령들"을 작성하였다. 이 <표-3>은 1899년부터 현재까지의 대통령들과 그들의 주요 치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차베스가 우호적인 감정을 느낄만한 인물은 1899년에 대통령이 된 삼보(Sambo)[8] 출신의 키프리아노 카스트로(Kipriano Castro)대통령이다. 베네수엘라가 커피 수출 플랜테이션에 전력하던 시기에 키프리아노 카스트로는 미국에 대해 독립적 지위을 주장하여 미국 민주당의 테오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는 종래 미국에 의해 파리로 추방되어 귀국치 못하고 사망하였다. 원주민 출신의 차베스는 키프리아노 카스트로 대통령과 원주민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반미로 일관한 카프리아노 카스트로의 행적은 차베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더하여 차베스가 찾아낸 또 다른 역할 모델은 쿠바(Cuba)의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였다. 1959년 친미 성향의 바티스타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수립한 피델 카스트로가 선택한 정책 대안은 피그만 사건 등 미국의 철저한 견제를 받는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국가인 사회주의 소련에 의지하는 것 이외에 카스트로의 쿠바가 생존할 방법은 없었고, 이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키프리아노 카스트로를 축출하고 들어선 후안 비센테 고메스(Juan

8) 차베스의 가족은 원주민(Amerindian)계와 아프리카계 흑인(Afro-Venezuelan)계, 그리고 스페인(Spanish)계의 복합 혼혈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주민 출신이라 밝히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1> 신자유주의 정책 채택기의 빈곤율 상승

Vicente Gomez)는 석유발견 이후 부패 일로를 걸었으며, 그 뒤를 잇는 반 고메스 진영이나 페레스 히메네스(Marcos Pérez Jiménez)의 군부(1948-1958) 역시 부패의 궤를 같이 하였다. 커피 단작 경제(單作 經濟, coffee plantation)에 투입된 석유의 부는 베네수엘라에 부(富)의 혼돈을 가져다주었고 정치판은 석유 수입의 나눠먹기로 광분하였는데 그 완성된 체제가 푼토피호 체제였다. <표-3>에 연도가 채색된 부분이 푼토피호 협약(Pacto de Punto Fijo) 체제를 표시하는 것인데 동시기의 석유관련 이익은 민주행동당(AD)과 기독사회당(COPEI)등이 번갈아 정권을 차지하는 교묘한 연정체계를 통해 나뉘어 졌고, 백인과 친정부 메스티소가 가세된 집단이 기득권 집단을 형성하여 1959년에서 1998년까지 40여년 동안 권력과 부를 독점하였는데 이를 푼토 피호 체제라고 한다.[9)]

9)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석유 이익이 지배층을 제외한 계층에는 나눠지지 못하였음에 주목하였고, 차베스가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석유 이익의 불공정한 분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1992년 쿠데타에 실패한 후, 1994년 사면 받아 출감한 차베스는 MBR-200을 중심으로 자신의 볼리바리안 주의 혁명 운동을 지속하다가 이를 확대개편하여 MVR(Movimento Quinta Republica, 제5공화국 운동)당을 창시한다. 1997년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어[10] 일어난 카라카스 봉기[11]에 영향을 받아, 1998년 12월 차베스는 기타 8개의 군소정당을 모아 사회주의 연합격인 애국전선(PP)을 결성하고 첫째, 국회해산 및 제헌의회 구성(서민 보호 헌법 제정), 둘째, 부패 공직자(의원, 판,검사) 추방. 셋째,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외채상환의 중단, 토지국유화. 물가통제 etc..)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56.2%의 승리를 달성하였다.

<표-3> 베네수엘라 역사 제4기(반외세 항쟁기: 1899-현재)의 대통령들

시기	대통령	비고
1899-1908	키프리아노 카스트로 (Kipriano Castro)	- 반미, 원주민출신, - 미군개입으로 유럽추방
1909-1929	후안 비센테 고메스 (Juan Vicente Gomez)	- 석유발견=> 카우디요 무마.
1929-1931	후안 바티스타 페레스 (Juan Bautista Pérez)	-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사임
1931-1935	후안 비센테 고메스 (Juan Vicente Gomez)	- 79세로 사망, 고메스 일가 카리브해로 망명

하는 전제를 세우고 그의 행동을 분석하였다.

10) <그림-1>에서 보여지는 1988년에서 1997년간 시기는 페레스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하는 시기였는데 이를 신자유주의 시기라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분석의 편의상 이를 신자유주의시기로 파악하였다.

11)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작용으로 베네수엘라 사회는 양극화되었고, 하층민들의 삶은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 내려졌다. 1990년대 말 베네수엘라 사회는 빈곤의 악화와 복지 서비스의 결여로 암울한 상황이었다고 Parker(2005), pp.47~48는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된 1988년에서 1997년의 기간 동안 빈곤률은 53.5%에서 63.2%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절대빈곤률은 22.0%에서 31.4%로 급증하였다.

1935–1945	엘리아사르 로페스 콘트라레스	– 고메즈 내각의 국방장관 출신, 좌익연합 탄압(PDN, 국민민주당), – 2차대전 중, 석유 이익 미국과 50:50 분여조약.
1945–1948	로물로 베탕쿠르 (Rómulo Betancourt)	민주행동당(AD), 28세대, 망명생활. 사회주의자인 칠레의 아옌데와 친교, 1945 군(軍)과 쿠데타로 집권.
1948–1948	로물로 가예고스 (Rómulo Galleos)	– 소설가, 반고메스 세력, – 군사쿠데타로 축출.
1948–1958	페레스 히메네스 (Marcos Pérez Jiménez)	– 군부독재 정권. 군사 쿠데타로 집권 (군사평의회) – 대미 우호관계 지속
1959–1964 12)	로물로 베탕쿠르 (Rómulo Betancourt)	– 민주행동당(AD) – 푼토피호 협약 체계 성립(1958), – 6년제, 1961개헌, – CPV(베네수엘라 석유공사)설립, – OPEC 창설. – 쿠바와 외교관계 단절
1964–1969	라울 레오니 (Raul Leoni)	– 민주행동당(AD) – 중도우역의 민족민주전선(FDN)이 결성 민주행동당과 동맹, 기독교 사회당 의회와 관계 약화. – 게릴라세력을 전진동맹 개명 선거참여유도 – 영국과 제네바 협정 체결. – 콜롬비아와 관계 약화
1969–1973	라파엘 깔데라 (Rafael Caldera)	– 기독사회당(COPEI)
1973–1979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Carlos Andres Perez)	– 민주행동당(AD) – 석유국유화, PDVSA(국영석유공사) 설립. (소득세율 인상) – 외국계 철강 국유화, – 70년대 중미지역 원조, – SELA(라틴아메리카 경제기구) 설립(1975)
1979–1984	루이스 헤레라 캄핀스 (Lluis Herrera)	– 기독사회당(COPEI) – 농지개혁과 산업화 시도, 환율통제 – 볼리바르의 투자계획을 수립. 내핍경제정책 – 사회 불안으로 게릴라 활동 재개. – 좌익정당세력 규합. – 유가하락과 외채증대로 위기직면

1984–1989	하이메 루신치 (Jaime Lusinchi)	– 민주행동당(AD), 의사출신 – 의회로부터 1년간 비상대권 위임 – 경제비상대책 수립 발표. – 1987년 대중폭동 발생
1989–1993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Carlos Andres Perez)	민주행동당(AD) –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정책도입. (유가인상, 임금삭감, 국영기업 민영화) => CTV(베네수엘라 노동총연맹) 총파업, 2차에 걸친 쿠데타 기도(1992). 1993 하야
1993–1998	라파엘 깔데라 (Rafael Caldera)	기독사회당(COPEI) 신자유주의 반대 – 국가의 경제개입
1999–현재	우고 차베스 (Hugo Rafael Chávez Frias)	제5공화국운동(MVR) 별도의 표에 상술.

이 승리를 가져온 56.2%의 지지율 중 MVR의 비중은 매우 적었지만 차베스의 인기가 급속히 증가하자, 사회주의 제정당에서 MVR에 가입하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 났고, 차베스는 이들에 의지하여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바 사회주의적 색채는 더욱 짙어지게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13] 실제로 중요한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광업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에서 이루어졌는데 차베스가 그 장관에 게릴라 출신이면서 급진운동당(LCR)과 만민을 위한 조국(PPT) 출신의 알리 로드리게스 아라케(Alí Rodriguez Araque)를 임명한 사례를 보아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들 세력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베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요소를 차베스는 잘 알고 있었기에 이들을 정리할 생각을 수차 밝혔으며, 2007년의 개헌투표에서 49.3%의 찬성에 그쳐 대통령 연임

12) 연도가 채색된 부분은 푼토피호 협약(Pacto de Punto Fijo) 체제가 적용된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임.

13) 실제로 당시 푼토피호의 혜택을 받던 우익 정당의 인물들이 차베스 진영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그 결과로 차베스진영이 사용가능한 인력은 주로 사회주의 정당의 영역에서 임용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한의 철폐 및 임기 7년제 등의 개헌에 실패하자, 2008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인 MVR을 제치고 사회주의자 연합당(PSUV)을 결성하여 후보 17명을 주지사에 당선시켰고, 2009년 2월15일 드디어 개헌투표에서 승리하여 연임제한을 철폐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표-4>는 우고 차베스의 10년 지배기간 중의 주요사건을 서론에서 논의한 시기구분을 사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의 좌측에는 동기간 중요 사건의 연표가 작성되어 있고, 우측에는 차베스의 주요 경제 정책들을 시기별로 열거하고 있다.

제1기 혼합 정책기(1999년-2000년), 제2기 사회주의적 정책 추진기(2001년-2003년), 제3기 반세계화 추진기(2004년-2006년), 제4기 21C형 사회주의 추진기 및 대미갈등 심화기(2007년-현재)에 거치는 동안, 차베스가 채택한 정책은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사용하여 교육과 위생을 중심으로 하는 빈민을 구제하는 사회복지정책이었고[14] 국제적으로는 볼리바르 주의에 입각한 중남미의 통일을 모색하는 국제 연대의 건설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4>에 잘 나타나 있다.

<표-4> 우고 차베스 10년 지배기간 중 주요사건 일람

시기	주요 사건	시기구분	우고 차베스의 경제정책
1998.12.-	베네수엘라 유가 최저점		
1998.12.06	차베스 대선승리.		
1999.02.02	차베스 취임.	**<제1기>**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

14) 당연히 대규모예산이 소모되었고, 이는 인적자산(Human Capital)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생산적 부분에의 무절제한 지출이 많아진다는 의미여서 유가하락이 일어날 경우에는 경제운용상 위험요인M로 대두될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혼합정책기 (시장지향적 정책과 사회주의적 정책의 혼합기) 1999-2000	-공약과는 달리 워싱턴 콘퍼런스 유지. -IMF 권고, 재정긴축 정책. -변동환율제 유지. -거시경제 안정자금 설치. -부가가치세율 2%인하. -대미 쌍무세금협정체결 및 투자협정. -외국인 투자 유도 정책. **(사회주의적 대빈민정책 및 유가인상)** -**볼리바르 계획(Plan Bolivar 2000)**으로 빈민 식료, 위생, 교육(1999.02) -OPEC 감산유도, 유가 인상 시도
1999	헌법개정 - 대통령 6년 중임, - 단원제, - 교육. 취업 기본권. - 3부제=> 5부제		
2001.12.09	반차베스 진영 파업 (일명 : 사장들의 파업)	**<제2기>** **사회주의적 정책추진기** 2001-2003	-49개 긴급조치령 발효(2001.11) (**탄화수소법(Hydrocarbon Act)**, 토지법, 외국자본 제한(석유 etc..), 물가통제, 민간은행 소액대출 의무화 등.) -창업지원 및 경영참가 가능한 종업원 지주제 강화(2001) (민관공동기업, 노사공동경영기업 대상) -광범위한 사회복지 정책 추진(2002) **볼리바르 미션(Mision Bolivar)** 17개 분야(빈민층의 교육, 의료, 주거, 식품, 사회참여 etc..)을 중앙정부와 군을 이용하여 추진(2002). -PDSVA(국영 베네수엘라 석유회사) 파업 해결. 자율권 축소(2002) -석유 이익금으로 **발전기금**(대통령 전권) 설치(2002) -외환할당제 및 물가통제(2003) -중앙은행의 자율권 제한(2003)
2002.04.09	반차베스 진영 파업 확대		
2002.04.11	쿠데타 발생. 일시실각		
2002.12.00	석유파업(PDVSA)		
2003.02.03	석유파업 종료		
2003.05.00	국민소환 투표제기		
2004.08.15	소환투표 승리	**<제3기>** **반세계화 추진기** 2004-2006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결성반대(2004) -볼리바르 아메리카 대체시장(**ALBA**, 2004) 및 남미에너지통합체(Petrosur), 카리브에너지통합체(Petrocaribe),안데스에너지통합체(Petroandina)결성(2005) -**MERCOSUR** 가입(2005) -안보리 진출 시도(2006)
2006.12	대통령선거		

2007.12.2	개헌투표 (대통령 연임제한폐지, 대통령 임기 7년, 외환보유고 직접통제, 1일 노동시간 6시간 등 제반 경제,사회 개혁.)	**<제4기>** **21c형 사회주의 추진 및 대미갈등 심화기** 2007-현재	-통신 전기 및 석유관련 기업 재국유화. -미곡물메이저 카길 국유화 추진(2009) -남미은행 추진(2008) **(남미통합 시도 강화)** -UNASUR(남미국가연합)발족 (2008) -ALBA 강화 추진 (베네수엘라, 브라질 갈등 구조) **(대미 전선 다각화 시도)** -이란 중국 등 역외 순방외교 강화. -대미 전선 다각화(러시아 군교류 표방)
2008. -	지방선거 승리		
2009.02.15	연임제한 관련 국민투표 승리		

이러한 제 정책을 군민합동 프로그램으로 추진함으로써 빈민계층의 지지를 확대해 가는 가운데, 정치적 기반으로서 볼리바리안 서클(Bolivarian Circles)[15]을 조직하여 정치참여를 높임으로써 정권의 지지기반을 강화했으며, 이에 더하여 기존의 노동조합에 대항하여 신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자격부여법(Qualifying Law)의 일부를 수정하여 볼리바리안 프로세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반대세력들은 차베스의 이런 행동을 정부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오판하여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에 걸친 관리자 총파업 등으로 역공세를 다시 취하였다. 이러한 공세는 차베스에게 1만8천에 이르는 관리자와 상층 노동자를 파면할 법적 근거를 갖게 하는등 오히려 차베스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2.3. 국제정치에서의 성과

미국의 정권 및 언론의 비우호적 태도[16]에서 시작된 차베스의 대미관

15) 볼리바리안 써클에 관해서는 Alvaro Sanchez (2003) 참조.

16) 미국의 뉴스 방송 CNN은 2002년 군부 쿠데타시기에 발포사건이 차베스측의 소행이라고 보도하였으며, 미국 행정부의 반 차베스조류는 차베스로 하여금 이라크의 후세인 방문, 이란 및 중국방문을 초래하였다. 또 베네수엘라의 기득권층은 십수차의 선거에서 모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다수파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계는 최초에는 외자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차베스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해외순방 및 대외원조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강화되면서부터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는 제국주의적 지배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그에 대응키 위해서는 남미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볼리바리즘(Bolivarism)을 주장하는 공격적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견 70년대 풍의 종속이론(從屬理論, Theory of Dependence)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데, 당시 개발된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끔 원료생산지나 상품수출지역으로 기능하게끔 '저개발의 개발(低開發의 開發)'을 강제하므로 이를 탈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와 수입대체 산업화(輸入代替 産業化)가 득세하였으나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경쟁력있는 상품을 생산해 내지 못하여 실패하였고, 그 결과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남미 제국의 외채위기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외채위기시 이를 해소시켜주는 댓가로 IMF의 권고가 중심으로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채택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에 의한 경제운용, 긴축금융 및 긴축재정으로 외자에 의한 국내기업의 외국자본으로의 전화(轉化) 등에 기인한 부작용으로 사회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에 따라 1999년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사회주의 정권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59년 쿠바의 카스트로가 등장한 이래, 1973년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Gossens) 등 비운으로 끝난 사회주의 정권도 있었지만 1999년 2월2일 출범한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은 성

그 일부는 미국이 지원해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줄곧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 2008년 11월 지방선거 직전의 공군 F16을 동원한 차베스 암살 음모는 그런 배경에서 출발하고 잇는 것이다.

공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각국에서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이 가속되었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실패에 의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베네수엘라에서의 사회주의 성공사례 등에 힘입어 수립되기 시작한 중남미 제국의 사회주의 정부는 상호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패턴을 선택하였다.

<표-5> 중남미 지역 사회주의 성향 대통령의 집권현황 및 국제 교류 현황 (2009.4.1 현재)

년도	국가명	성명	ALBA[17] 2004.12	MERCOSUR 1995.01	FTA 1994
1959년	쿠바 (Cuba)	피델 카스트로 (Fidel Castro)	O		
1999년	베네수엘라 (Venezuela)	우고 차베스 (Hugo Rafael Chávez Frias)	O	O[18]	
2005년	온두라스 (Honduras)	마누엘 셀라야 (Manuel Zelayas)	O		O
2005년	우루과이 (Uruguay)	따바레 라몬 바스께스 (Tabare Ramon Vazquez Rosas)		O	
2006년	볼리비아 (Bolivia)	에보 모랄레스 (Juan Evo Morales Ayma)	O	△[19]	
2006년	칠레 (Chile)	미첼 바첼렛 (Michelle Bachelet)		△	O
2006년	페루[20] (Peru)	알란 가르시아 (Alan García Pérez)		△	O
2006년	브라질 (Brazil)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Luiz Inacio Lula da Silva)		O	
2006년	니카라과 (Nicaragua)	다니엘 오르떼가 (Daniel Ortega)	O		O
2006년	에콰도르 (Ecuador)	라파엘 꼬레아 (Rafael Correa)		△	
2007년	아르헨티나 (Argentina)	끄리스티나 페르난데스[21]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O	
2008년	과테말라 (Guatemala)	알바로 꼴롬 (lvaro Colo)			O

2008년	파라과이 (Paraguay)	페르난도 루고[22] (Fernando Lugo)		O	
2009년	엘살바도르 (Elsalvador)	마우리시오 푸네스 (Carlos Mauricio Funes Cartagena)			O

<표-5>에 나타난 국가 중 미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를 맺은 나라는 6개국이며, 그 외에 중남미 국가 중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가 있다.[23] 1994년 마이애미의 미주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모든 중남미 국가(34개국)를 본부를 마이애미에 둔 "미주 자유무역지역"(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으로 편성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며, 2005년까지는 협정을 마무리하려는 협정을 맺었으나 2008년 하반기, 베네수엘라의 반대로 그 성립이 지연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FTA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남미 친미국가의 대표격인 우리베 대통령의 콜롬비아와 페루가 FTA를 맺었다는 이유로 안데스공동체(CAN, La Comunidad Andina de Naciones)를 2006년 4월9일 탈퇴하는 등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

17) 표에서 보이는 이와의 ALBA 가입국은 도미니카(Dominica)가 있고, MERCOSUR는 준회원국 콜럼비아(Colombia), 그리고 업저버인 멕시코(Mexico)가 있으며. 표에 나타나지 아니한 미국과 FTA를 맺은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 코스타리카가 있다.

18) 베네수엘라는 2005년에 MERCOSUR(南美共同市場)에 가입하였음.

19) MERCOSUR의 △는 준회원국(Associate members)을 나타냄.

20) 친미적 성격을 띄고있는 페루를 사회주의 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분석의 편의상 삽입하였다.

21) 전대통령 네스트로 키르츠네르(Nestor Kirchner)의 부인으로 별명은 아르헨티나의 힐러리다.

22) 루고((Fernando Lugo)는 카톨릭사제 출신이나 사회당 연합으로 당선되었기에 사회주의로 구분함

23) 현재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캐나다·멕시코·칠레·호주·페루·바레인·모로코·오만·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 등이며,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는 나라로는 대한민국이 그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는 2006년 5월 22일 멕시코가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었고, 콜럼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이유로 G3 협정을 탈퇴하였는데, G3란 멕시코와 콜럼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무역자유화, 투자교류확대,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맺은 삼자협정이었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에 MERCOSUR(南美共同市場)에 가입하였는데 그에 따라 2006년7월 4일 메르코수르 가맹국은 3강2약[24]으로 편성되게 되었고, 라틴 경제의 54%에서 7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 차베스는 ALBA(Alternative Bolivariana para la America)[25]를 결성하여 FTAA를 결성하려 노력하는 미국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표-6>에 보이는 것처럼, 쿠바(Cuba)와 베네수엘라(Venezuela) 사이에 2004년12월에 구성된 ALBA는 볼리비아(Bolivia, 2006.4.29), 니카라과(Nicaragua, 2007.1가입)[26], 온두라스(Honduras, 2008.8.25가입)[27], 도미니카(Dominica, 2008.1가입) 등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에콰도르(Ecuador) 대통령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에게 가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ALBA는 가입국에 대한 미국의 침공이 발생하면, 가입된 모든 나라가 동참하여 합동 군사행동(joint military action)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온

24) 3강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를, 2약은 우루과이와 파라구아이를 의미한다.
25) ALBA는 "미주(美洲)를 위한 볼리바르의 대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26) 니카라과의 가입은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대통령에 대한 3,100만$의 원조와 함께 이루어 졌다.
27) 온두라스의 가입도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에 대한 원조(농업용 트랙터 etc..)와 함께 이루어 졌다.

두라스 의회 등은 가입을 승인했지만, 브라질 등 여타국가는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28] 또 ALBA는 2008년 12월의 회합에서 유럽공동체(EU)의 유로(Euro)처럼 통합화폐인 수쿠레(SUCRE)의 사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MERCOSUR, ALBA와는 별도로 2008년 5월 23일 UNASUR(남미국가연합, Union de naciones Suramericanas)가 12개 회원국(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으로 발족되었고, 남미은행 역시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7개국으로 2008년 출발 예정이라 알려져 있다.

이런 경제 통합 움직임 외에도 에너지 분야에서의 통합움직임도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1960년 로물로 베탕쿠르(Rómulo Betancourt)의 주도로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을 창건했던 전통을 이어 차베스는 에너지 분야 통합체를 만들었다. 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남미에너지통합체(Petrosur)를 2005년 5월에, 카리브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카리브에너지통합체(Petrocaribe)를 2005년에, 안데스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데스에너지통합체(Petroandina)를 2005년 6월에 설립한 것이 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테말라의 알바로 꼴롬(Ivaro Colo) 대통령이 카리브에너지통합체(Petrocaribe)에 가입하기 위한 문제를 차베스 대통령과 협의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방문하

28) 이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견제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군에 의한 파나마 침공이나 카리브해의 그레나다 침공 같은 군사적 행동을 막으려는 시도인 듯하지만, 가맹국들의 취약한 군사력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는 등, 이러한 에네지 통합체의 영향도 증대되고 있는 형편이다.

차베스의 반미 행동을 통한 중남미 경영시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외교무대에서도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2000년 8월10일 미국의 반대를 무릅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의 회담을 필두로, 이란, 리비아를 넘나드는 외교행각은 지속적으로 행해졌는데 최근에는 중국과 이란에 접근하여 달러를 대신할 신통화 문제 등을 제기하여 미국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더니, 2008년 11월 25일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순방을 이끌어 냈고, 2009년 3월15일에는 러시아에 전략 폭격기 기지 설치를 제안하였고, 중국과의 지속적인 접근으로 2009년 3월19일에는 중국에 석유 정제시설 착공한다고 발표하고 미국 곡물 메이저인 카길(Cargill)의 아르헨티나 공장 국유화 선언을 하는 등,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 것이라는 다짐(2009.03.19)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차베스의 이러한 움직임에 더하여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Juan Evo Morales Ayma)는 2008년 9월18일 이란과 협력관계를 갖겠다고 발표하였고, 2009년 3월15일에는 엘살바도르의 좌파가 선거에서 승리하여 마우리시오 푸네스(Carlos Mauricio Funes Cartagena)가 대통령에취임하였는데, 이는 콜롬비아, 페루 등과 함께 엘살바도르를 라틴아메리카의 강력한 우방으로 여기던 미국으로서는 불리한 환경에 접어드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대안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안을 사용하는 것이다. 2008년 3월 브라질 국방장관 넬손 조빙과 만난 부시행정부의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브라질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약속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가 주도하는 ALBA의 세력 확대



<그림-2> 친미, 반미성향국가 분포 (2009.04.01 현재)

를 막아보려는 시도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이후 브라질은 브라질이 주도하는 '남미안보협의회(CDS)' 창설안을 미주협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2008년 2월 말 룰라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 당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칠레와도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은 이것이 남미공동체(UNASUR)의 첫 결실이라 하고 있지만, 2008년 5월 콜롬비아의 참여 거부 선언이 나오는 등 원활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듯이 보이고 있다.

브라질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국의 위상(位相)[29] 및 경제에 대한 신뢰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러한 남미안보협의회(CDS)의 제안 이후 남미 사회주의 권역은 이른바 세계화를 지지하며 오바마 정부와 접근하는 룰라파[30]와 차베스파로 양분되었으며 남미 전체의 친미 반미 구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림-2>에 보이는 것처럼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반미 국가이 범주에 속하였었으나 브라질의 전향이후 판도가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 환경이 미국에 적대적으로 변하는데 대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음의 행동은 군사적 행동이다. 군사적 행동은 다니엘 오르테가의 파나마나 그레나다에서도 충분히 보여 졌지만, 최후의 수단이고 국제적인 평판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 고려할 것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간접적 군사행동, 즉 해당국에서의 친미 쿠데타가 발생할 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11월 2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反)차베스계 현역 장성들이 참가한 쿠데타 시도[31]가 있었는데, 현재 베네수엘라의 집권여당인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연합당(PSUV)의 아리스 또불로 이스뚜리스 총재는 2008년 9월14일 "이들 뒤에는 지난 2007년 말 개헌 반대를 위해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던 2-D운동[32]의 핵심세력들이 자

29) 브라질 중산층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남미의 주도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독주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가 남미경영에 성공하려면 브라질의 위상을 반영한 정책, 즉, 의장국의 양보를 포함한 제반 예우의 상향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30) 2009.3.15 대선에서 승리한 엘살바도르의 마우리시오 푸네스는 친시장적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룰라가 자신의 사회주의 지도자 원형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친시장적인 룰라파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하지만 차베스의 원조제의가 있어 향후 어떤 전개를 보일지는 미정

31) 미국 정부가 주도한 우고 차베스 대통령 제거작전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 사건은 F-16 전투기 조종사들을 포섭한 반(反)차베스계 현역 장성들의 생생한 육성이 담긴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32) 2007년 말,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기획한 일명 플라이어스 작전(Operation

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의 기득권층은 차베스가 14회에 걸친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베스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생각한다. 이는 미묘한 인종적 갈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주민에 가까운 차베스가 백인이거나 메스티소인 자신들보다 저열한 존재라고 파악하는 것이 근저에 깔려 있고, 언제라도 자신들이 마음을 먹는다면 차베스를 제거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미국은 자신들의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02년의 쿠데타나 2007년의 쿠데타 기도에서 이러한 성향이 여실히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베네수엘라의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미국 중앙정보부(CIA)는 꾸준히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의 간접적 군사행동의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힘든 것이라 할 수 있다.[33)]

Ⅲ. 우고 차베스의 지속가능성

3.1. 국내지지배경 : 경제적 성과

우고 차베스의 지지배경은 빈민층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사회

Pliers)에 포섭된 퇴역 군 장성들과 언론사 사주들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와 개헌 반대운동이 2-D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다.

33) 이는 차베스의 2002년 쿠데타에서 보여진 반대집단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바 있는데, 군부와 백인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쿠데타를 스스로 완결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미국의 개입이 늦어지자 포기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볼때 그들은 미국을 자신들을 지지배경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 문제는 현재의 미군 전개 상황을 고려할 때 트리니다드나 파나마에서처럼 전면적, 직접적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현지인의 군사행동을 지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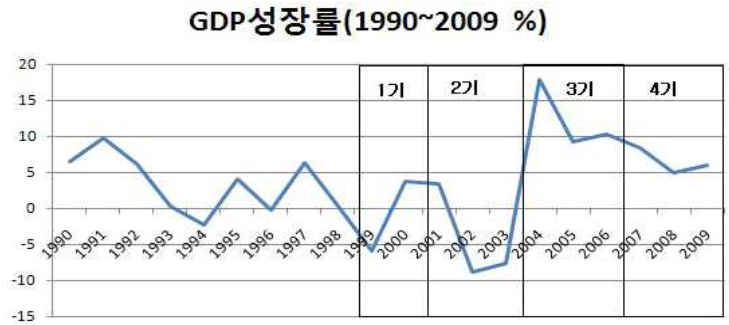
<표-6> GDP성장률과 주요선거에서의 지지도 변화

연도	GDP 성장률	지지율	비 고
1990	6.5%	-	
1991	9.7%	-	
1992	6.1%	-	
1993	0.3%	-	
1994	-2.3%	-	
1995	4.0%	-	
1996	-0.2%	-	
1997	6.4%	-	
1998	0.3%	56.2%	대통령선거
1999	-6.0%	72.0%	국민투표
2000	3.7%	59.8%	대통령선거
2001	3.4%	-	
2002	-8.9%	-	
2003	-7.7%	-	
2004	17.9%	58.0%	소환투표
2005	9.3%	-	
2006	10.3%	62.9%	대통령선거
2007	8.4%	49.3%	개헌투표[A] 敗
2008	5.0%	-	
2009*	6.0%	54.9%	2.15 연임제한 투표

복지정책들의 시행이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70년대의 자원민족주의 열풍과 수입대체산업 육성 실패에 의한 경기후퇴에 기인한 80년대의 경제적인 암흑기와 90년대의 신자유주의 정책시기의 빈부격차 확대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경제성장이었다. 실제로 차베스의 취임 직후에는 40억$에 달하는 해외투자의 이탈로 -6%의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이후 80억$의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알려진 2002~2003년간의 총파업과 쿠데타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경향은 아래 그림, 199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시기의 GDP성장률 도표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 제2기의 쿠데타라는 돌발 변수에 의한 하락변동과 3기 초의 그에대한 반동으로서의 경기의 상승을 제외한다면, 1기이후 4기까지 경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에 동반하여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GDP성장이 일어났는가? 유가 외채 동향의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유가의 상승[34]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차베스의 통치기간 중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49개조의 긴급조치 중 탄화수소법(Hydrocarbon Act)의 시행으로 석유세가 매출기준이 아닌 생산기준의 로열티로 성격이 바뀌었다. 즉 생산원가 조작을 통한 이익의 축소가 불가능해지고, 수익기준의 부과에서 생산량 기준의 로열티 부과 형태로 바뀐 석유세는 풍족한 재정을 가져다 주었다.

석유생산량 세계 5~6위를 넘나드는 자원보유국 베네수엘라에서는 원유가 담보가 되어 기채(起債)하기도 쉬웠다. 2008년 10월 14일 현재 지급

34) 원유가 상승은 GDP 상승 효과 및 유보된 자금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준비금은 388억$에 달하고 있고, 또 외채의 대부분은 2018년 이후 장기채로 전환돼 있어 외채에 의한 국가, 재정 및 금융시장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과거와 같은 외채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7> 2000-2009간 유가 외채동향

연도	베네수엘라산(産) 원유가격 (달러/배럴)[35]	외채(백만$)[36]
2000		21,727
2001	20.21$	22,502
2002	21.95$	22,513
2003	25.76$	24,780
2004	32.88$	27,253
2005	46.15$	31,198
2006	56.35$	27,253
2007	64.74$	27,315
2008	(상반기 기준35$) 103.90$(1-8평균)	29,953
2009*	(기준60$) 45.22$[37]	

외채와 석유세로 벌어들인 외화가 투자된 곳은 우선 에너지 부분[38]이었다. 경질유(輕質油) 부분의 신규유전이나 정유공장, 송유시설에도 투자되었지만 중질유(重質油) 및 초중질유(超重質油) 그리고 아직 개발이 미흡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 천연개스 부분의 개발 및 남미를 아우르는 송유관 사업에도 투자되었다.

더하여 차베스 지배 제3기인 2004년~2006년의 기간부터는 카리비안해를 연대완성을 위한 해외원조 및 중남미 통합화 사업에도 사용되었고[39], 무엇보다도 빈민을 돕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랄 수 있는 사회복지 및

35) 원유가격 2007까지는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자료임.
36) 자료원 : 재경부.
37) 2월말 현재 WTI 기준가격임,
38) 정유시설 경질유의 경우에는 해외투자가 금지되었지만, 중질유 및 초중질유, 그리고 가스시설에는 해외투자가 허용되었다.
39) 유가.외채 동향 제3기를 보면 외채가 제3기에 급속히 증가한 것이 보인다.

후생사업에도 대규모로 투자 되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에서는 2004년 5월, 경제사회개발기금(Fondespa)을 설정하여 사회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했는데. 이는 교육, 보건, 의료, 생필품의 염가지원 등, 8개 영역에서 서민을 지원했고, 또 정부는 지역개발거점(NDE)을 설정하여 도로, 철도, 지하철,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의 투자를 증가 시켰다.

이렇듯 우고 차베스 제1기 및 2기에 걸쳐서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각 방면에 걸쳐 시행된 사회복지 프로그램[40]들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8>이다.

<표-8> 우고 차베스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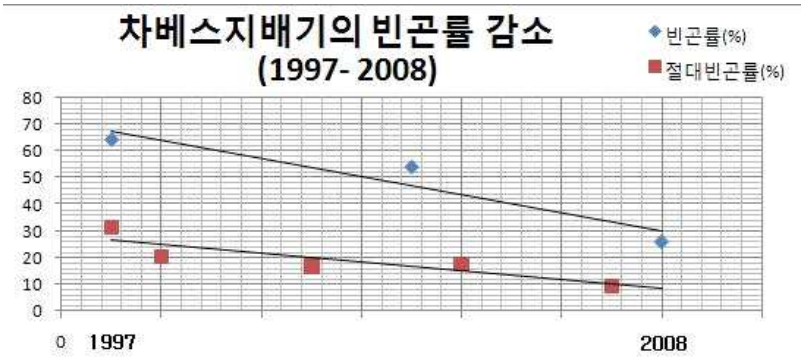
명 칭	기간 구분	주 요 내 용
볼리바르 계획 2000 (Plan Bolivar 2000)	중장기	군(軍) 시설을 이용한 빈민원조 프로그램
토지개혁	중장기	토지법에 의한 유휴지 농지전환 및 주택용 토지 재분배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중장기	종업원 지주제를 통한 경영참가(민주적-자율적 경제) 우애, 평등, 및 환경 중시 표방
볼리바리안 학교와 대학	중장기	인적자본(Human Capital) 향상을 위한 공교육 확충
데이케어 프로그램	중장기	재생산 관련 저소득층 지원사업.
경제사회개발기금 (Fondespa)	중장기	교육, 보건, 의료, 생필품의 염가지원 등, 8개 영역에서 서민을 지원하는 미션을 지원하는 기금 설정.
미션 차베스	중장기	중장기 빈곤 퇴치 프로그램
볼리바르 미션 (Mision Bolivar) 17개	단기	미션 로빈슨 : 기초 교육

40) 차베스 정부의 빈곤정책과 관련해서는 Gregory Wilpert (2003) 참조.

	단기	미션 히바스 : 중등 교육
	단기	미션 수크레 : 고등 교육
	단기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공중 보건 (쿠바 의료인력 수입)41)
	단기	미션 미란다 : 재향군인회
	단기	미션 메르칼 : 식량 분배

대규모의 자금투입이 동반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시는 바로 결과를 만들어 냈다. 1997년에서 2008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빈곤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래의 도표 “차베스 지배기의 빈곤률 감소”는 동기간 빈곤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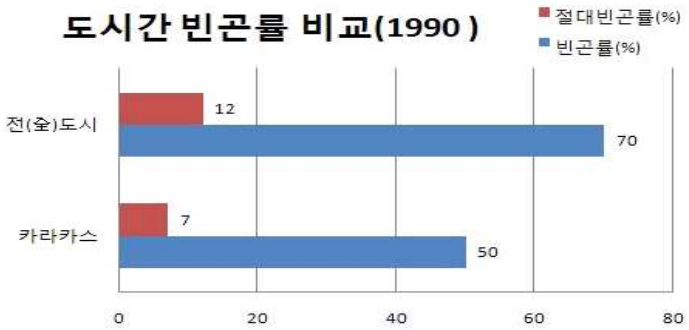
빈곤률은 1997년 64.2%에서 2008년 26.0%로 감소하였으며, 절대빈곤률은 1997년 31.4%에서 2007년 9.5%까지 감소하였다. 또 동기간 지니 계수도 하향조정되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이라고 보여 지고 있다.



41) 차베스(Hugo Chávez)와 쿠바의 카스트로(Fidel Castro)는 2004년 12월 14일에 원유 1일 96,000 barrels을 20,000명의 의료 스탭과 바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오일 원조의 시단이 되었다.

또 도시간 빈곤률 도표는 왜 차베스가 지방의 빈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에 비중을 많이 두었는지를 알려준다.

1990년 수도 카라카스의 빈곤률이 50%였을 때 지방은 70%, 절대빈곤률이 7%였을 때 지방은 12에 달했다는 것을 보면 베네수엘라의 도농격차(都農隔差)가 심각했음을 볼 수 있는데, 왜 차베스가 지방 빈민 정책에 주력(注力)했는지를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또 동기간 실업률도 1999년의 16.6%에서 2008년에는 7.1%로 하강하였는데, 이는 종업원지주제를 통한 경영참가 및 소규모 창업지원의 성과라



고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베네수엘라의 인구구성을 보면 20%의 벡인과 70%의 메스티소, 8%의 흑인, 그리고 2%의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20%의 백인들의 대다수가 기득권층에 속하여 있었고, 이들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차베스 세력이 되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관찰할 때 인종적 고려를 결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3.2. 제반 불안요인

1) 석유관련 이익의 계층간 배분 문제

다음의 <표-9>는 1928년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래, 그 수익이 어느 계층에 귀속되었는가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표이다.

<표-9> 석유수입의 분배

구분	명칭(기간)	주 수익집단	비 고
제1기	고메스(Gomez) 기 (1928-1935)	**고메스** (측근친족및 군부) **+ 미국자본,**	- 석유발견(1928), - 고메스 및 측근 친족 부정축재, - 군부에 분여, 군부세력 무마. - 미국 석유자본 개발투자 이익,
제2기	반고메스 집권기 (1935-1948)	**반고메스 집단..** (친정부 크리요오,	- 혼란기 군부 대두 우려 점증. - 2차대전 중에 이익을 미국과

		친정부 메스티소) **+ 미국자본.**	50:50으로 분여하는 조약.
제3기	군부독재기 (1948-1958)	**군부집단,** (친군부 크리요오, 친군부 메스티소) **+ 미국자본.**	- 군사평의회 이익극대화. - 친군부세력 결집, 기득권 세력 성립. -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맞물려
제4기	푼토피호 체제 (1958-1998)	**기성** **정치권(AD,COPEI)** (친정부 크리요오 친정부 메스티소) **+ 미국자본.**	- 국민행동당(AD),기독사회당(COPEI) 중심의 이익분여체제 완성. - 친정부 기득권집단 대규모 성립 (경영자,노조,PDVSA,언론,일부 군부) - 70년대 국유화(자원민족주의), 80년대의 석유회사 민영화에도 불구, 미국 석유자본 이익 지속.
제5기	차베스(Chávez) 기 (1999-현재)	**빈민, 노동자계급.** 카리브 및 중남미 국가. 기존 수익세력 (과거 친정부 크리요오 및 친정부 메스티소 **+ 미국자본.**	- 푼토피호체제 분여분을 빈곤계층에 투입(지지세력 증대) vs. 기존세력의 이익감소로 반감증대(경영자, 노조, PDVSA, 언론, 일부 군부)(반대세력) - 유가상승, 석유기업 재국유화, 석유세 증가 등으로 이익증대분 국제사회에 분여(2005). - 차베스의 석유회사 재국유화 및 석유산업에의 투자제한에도 불구, 미국 석유자본 이익은 지속적 증대.

<표-9>에 따르면 석유의 이익을 향유한 집단은 고메스->반고메스->군부(軍府)->푼토피호체제하의 정치권->빈민, 노동자 및 해외국가로 변화해 왔음을 볼 수 있다.[42]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 기간에 걸쳐 이익을 보고 있는 외국자본, 표에서는 미국자본이라 표시되어 있는 석유개발 관련 메이저들의 자본에 대한 수익이 그 것이다. 이들

42) 석유이익의 분여는 당시의 지도계층과 그 카운터 파트와의 관계 그리고 해외자본의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각 시기별로 달라 진다. 그 수익이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분여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은 표에서도 설명했지만, 국유화, 민영화에 상관없이 유가 상승 및 하락과 상관없이 이익을 얻는 집단이다. 실상 차베스가 석유세를 생산 로열티로 변경하더라도 석유 메이저들의 이익은 규모면에서는 다소 변동이 있겠지만, 대차는 없을 것이고, 석유개발 투자나 관련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차베스가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석유산업에 관한 한, 석유 메이저들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새로운 산업의 범위 역시 제한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유가 상승으로 금융유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채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유가 외채동향(2000-2009) 도표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 두 번째는 기존 수익 세력이라 표현되어 있는 계층이다. 이들은 군부시절에는 친군부, 푼토피호 체제 내에서는 친정부로 행동하던 계층이다. 친정부적인 과거의 크리요오 들과 친정부 메스티소들이 그에 해당하는 계층들인데, 이들은 앞에서도 수차 지적했지만 자신들이 베네수엘라의 주인이고, 자신들의 이익은 절대로 감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다. 이들이 경영자 파업 및 총파업에 참가하고, 석유공사(PDVSA)의 사보타지, 쿠데타, 소환투표, 2-D운동등에 참여하는 주된 계층이다. 이들에 대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미국과 연대한 체제전복을 누리는 세력으로 재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유가불안(油價不安)

2008년 하반기 배럴덩 150$까지 접근하였던 유가가 2009년 2월말 현재 45.22$까지 하락하였고, 유류비수기 및 세계경기의 하강 추세에 따라 향

후 유가하락의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8년 상반기 기준 유가를 35$로 산정해 놓았고 기준유가를 크게 상회한 유가 때문에 이익을 누렸으나, 2009년에는 기준유가를 60$로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막대한 자금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 5위 내지 6위의 원유 생산국이면서 중질유 및 초중질유까지 포함하면 세계 1위의 원유 보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지난 2005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유가로 인해 막대한 재정수입을 획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차베스 대통령은 서민 지원프로그램인 각종 Mision을 추진했으며 SOC 개발, 및 해외 국가 원조등에도 활발하게 투자해, 정부주도형 고도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유가가 하락하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이 60%를 넘고 심지어는 93%[43]까지 육박하기도 하는 베네수엘라의 국제수지는 신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유가 하락의 불안은 방만해진 재정수입의 부족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차베스는 상위 20%소득 계층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소득세 부과에 더하여 유류가격 인상 계획이 겹쳐 상위 소득 계층의 불만이 점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이에 더하여 유가하락은 정부의 내,외채 지급에 대한 로드맵에 미조정을 요구할 지도 모르므로 유가 불안 요인은 결코 과소평가할 대상은 아니라 할 수 있겠다.

3) 물가(物價)

베네수엘라의 경제 변수 중에서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물가이다. 과거와 같은 초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자원 수출국의

43) 미국 <마이애미 헤럴드>는 석유가 지난해 전체 수출의 93%를 차지해, 집권 전의 68%보다 절대적으로 의존성이 커졌다고 2009년 3월1일 보도했다.

특질상 환율 고평가 및 수입 확대 그리고 물가압력은 통상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유가가 상승하고 잉여수익이 존재할 때는 물가 상승의 압력을 견딜만 하지만 유가가 하락하여 이익유보가 작아진다면 문제는 심각해 진다.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90-'94간 평균 41%, '95-'99간 53.8%로 신자유주의 채택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00-'04기간 중에는 적극적인 외화관리에 힘입어 평균 20.8%로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적절한 관리로 계속 하락하던 물가는 2005년부터 유가 상승에 따라 외화 유입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2007년까지는 상승했으나, 2008년 다시 안정을 찾았다가, 올해(2009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데이터는 중앙은행, 2009년의 데이터는 재경부의 목표 인플레 수치임.

4) 고용구조(雇傭構造)

차베스는 고용강화책을 다방면으로 실행하여 실업률을 하락시켰는데

이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포함되었다. 그래서 1999년의 16.6%의 실업률을 10년 만인 2008년에 7.1%로 하락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동기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부분이 더 증가 하였다. 베네수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엄격한 노동법의 적용으로 해고가 어려우며, 노조설립도 의무화되고 있어 기업주가 정식 직원의 채용을 꺼려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또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법정 지급금도 Utilidades, Liquidacion, 보너스 등 종류가 많아서, 1년 12개월치 급여에 이런 의무적인 법정 지급금을 고려할 경우, 1년 급여가 거의 18~20개월 급여로 계산해야 할 정도로 과다해 지게 된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종업원의 경영참가 역시 정식 직원의 고용을 꺼리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2007년의 개헌안에서 들고 나온 것처럼 1일 6시간 근무제를 채택하려는 시도도 경영자들에게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고용구조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 양극화에 의한 사회갈등요인이 커질 수 밖에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5) 국가 위험도의 상승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대통령의 반시장적인 정책, 반미 등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가위험도 지수(國家危險度 指數, EMBI)[44]가 높아졌으며,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동 국가위험도 지수는 사상 유례없이 높은 Point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표-10>을 보면 2008년 2월에서 2008년 11월 사이에 남미국가들 모두가 EMBI가 악화되었으며 특히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현저하다, 아

44) 국가위험도(國家危險度)란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지수(단위 : Point)를 말하는 것인데 특정 시점의 특정 국가의 위험한 정도를 표시하여 투자 적격여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지표역할을 한다. EMBI지수는 JP Morgan이 작성하는 지수이다.

<표-10> 국가위험도 지수(EMBI)

국가	2008.2.25(월)	2008.11.6(목)	증감
베네수엘라	505	1,499	994
멕시코	154	398	244
아르헨티나	470	1,711	1,241
페루	199	449	250
콜롬비아	230	506	276
브라질	239	451	212
Source : JP Morgan			

르헨티나의 경우는 외채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해 할 수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동기간 유가가 급등하여 150$수준에 육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화된 것을 보면 이는 순전히 차베스의 행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중남미 평균 EMBI 지수는 612 Point 이다.

이외에도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의 베네수엘라 국가위험도는 각각 Moody's : B2, Standard & Poor's : BB-, Fitch IBCA : BB-로 모두 투자 부적격임을 나타내고 있는바 차베스에 대한 세계 경제계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외 인식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는 우고 차베스의 원유개발,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더하여 반미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의 외자유치 규모는 지난 1998년과 비교해 볼 때 87%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BCV)이 밝힌 바에 따르면 라파엘 깔데라(Rafael Caldera)의 집권 마지막 연도인 1998년에 49억8천5백만 불이였던 해외투자가 차베스 집권 9년째인 2007년에는 6억4천6백만 불로

줄었다고 한다.

석유에의 지나친 의존성과 석유가격의 하락, 물가 및 고용의 압박을 고려할 때, 차베스 정부는 해외 투자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II.3에서 본 것처럼 -그의 거침없는 반미행보는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유가하락과 함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Ⅳ. 결론

21세기형 사회주의 기치를 전면에 앞세운 우고 차베스의 중남미 경영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의 서두에서 제기한 의문에 불충분하게나마 대답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우고 차베스는 흔히 영구집권을 꿈꾸는 독재자이며 "포퓰리스트"라고 비난 받고 있는데, 그에게는 확실히 그런 요소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는 적절히 국민에게 권력을 분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약 200만 명이 참여하는 정치조직인 볼리바리안 서클과 각 지역에 분산된 2만 여 개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결성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15만 여개의 협동조합에서 150만명이 사회경제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이 현재 차베스의 지지계층이자 분산된 권력을 가진 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들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질 때 이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여기서도 유가하락 여부와 해외투자의 조달 여부가 관건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투입요소의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권력의 주체

로 파악하기는 힘들고 다만 우고 차베스의 조건부 지지세력에 불과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베스 1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그의 지지세력은 단순성을 가지고 있어 경제 부진에 관련된 외생변수가 투입될 때, 악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사회적 분열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빈민과 노동자등 정권을 받치는 기층민중 계층을 벗어나, 정권유지를 위해 사용가능한 인제의 풀(Pool)을 살펴보자. 원주민 출신이면서 군(軍) 출신인 차베스가 의지할 수 있는 우익 인사들은 거의 없었고, 그 때문에 차베스는 PCV(베네수엘라 공산당)와 Podemos(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PPT(모두를 위한 조국)등에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차베스를 이용하여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당연히 갈등관계가 초래되어 종내 결합이 깨지고(MVR이 깨지고) 다시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PSUV)이 창당되는 등 혼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차베스의 강점이라 불리 우는 그의 카리스마는 단순히 기층 민중들인 그의 지지계층에만(그것도 주는 것이 있을 때만) 통하고, 협력관계에 있거나 반대측 입장에 서 있는 계층(특히 우익 계층)에게는 통하지 않는 제한 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게 된다. 45)

또 그의 사회주의 지향도 문제가 없지 않다. 본문 중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사회주의, 이제는 21세기형 사회주의라 칭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라 하기 힘들고 민족영웅을 흠모하는 차베스가 평등한 사회에서 같이 잘살자는 입장을 토로하는 몽상적인 민족주의적 사회

45) 우익, 기득권 계층이 차베스에 동조하지 않는 사유로 지적할 수 있는 이유로, 원인행위야 어쨌든 범죄의 증가에 따르는 사회적 안정의 저해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후고를 요한다,

주의이다. 따라서 시장을 부정하는 것도 긍정하는 것도 아니며 편의에 따라 혼합적 경제정책(Policy Mix)를 적용하여 시의적절하게 다루는 그런 미묘한 사회주의인 것이다. 다만 그가 차용해 온 인재 풀의 인물들이 강성 사회주의자 였기 때문에 그의 정책에 사회주의적 색채가 농후하게 윤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를 표방하기는 하지만 지도 철학이 부재한 철학의 빈곤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21세기식 사회주의는 공허한 기표(empty signifier)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2~2003년에 걸친 총파업, 쿠데타 등 미국의 차베스에 대한 방해는 혼합경제를 표방하던 차베스를 반미주의자로 만들었다. 그가 존경한 독립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그랑 콜롬비아'와 그의 롤모델인 카스트로의 행적, 그리고 때마침 찾아온 전 세계적인 호황에 힘입어 차베스는 반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란, 이라크, 리비아 방문 등 초기에 미국은 적절히 대응치 못하였기에, 차베스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졌으며 제3, 4기를 잇는 반미주의의 행적 종내는 ALBA의 창설에 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차베스의 행적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른바 제도적 요인(制度的 要因)의 문제인데 베네수엘라의 산업구조(産業構造)에 관련된 문제가 그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기타 광물, 커피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크고, 인적 자본이 취약하며 공업화가 미진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전체 경제가 모두 채취산업, 특히 석유부문에 직결되어 있고, 유가(oil price)는 곧 전 사회의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바로메타이며, 국가 재정 및 수출은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

존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유가의 변동 특히 하락반전은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마련이다. 복지정책 재원이 고갈되고, 물가 및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해외에서 평가하는 국가 위험도 지수들도 역시 악화일로를 걸어 외자 조달에도 곤란을 겪게 된다면 차후의 우고 차베스 행보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찍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곽재성(2006),「베네수엘라 차베스 개혁의 성과와 한계」, 중남미연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남미연구소, 제25권 1호, 31-55.

김기현 (2003),「차베스 정권의 등장과 위기로 본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변동: 예외주의의 종결인가?」,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6권 제1호, 311-347.

김수행 (2007),「베네수엘라의 '21세기형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진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제4권 제2호, 251-266.

송기도 (2002),「21세기 중남미의 변화: 차베스 정권과 브라질 대선」, 중남미연구, 제21권, 85-99.

조돈문, 김종섭, 이내영 편 (2005),『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서울: 오름

홍욱현 (2007),「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유권자는 왜 좌파정부를 선택하였는가?」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20 No.2: 39-80

홍욱현 (2006),「차베스 정부의 좌파정책: 21세기 사회주의 아니면 임시처방인가?」이베로아메리카논문집, 8권 2호: 49-75

Alvaro Sanchez (2003), "Bolivarian Circles: A Grassroots Movement", http://www.venezuelanalysis.com

Buxton, Julia (2003), "Economic Policy and the Rise of Hugo Chávez." In *Venezuela Politics in the Chávez Era: Class, Polarization & Conflict,* ed Steve Elliner & Daniel Hellinger. Boulder: Lynne Lienner Publishers.

C.P. Pandya and Justin Podur (2004), "The Chávez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ZNet, http://www.zmag.org

J. F. Hornbeck (2005), "A Free Trade Area or the Americas: Major Policy Issues and Status of Negoti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http://www.state.gov

Gregory Wilpert (2003). "Mission Impossible? – Venezuela's Mission to Fight Poverty", http://www.venezuelanalysis.com

J. F. Hornbeck (2005), "A Free Trade Area or the Americas: Major Policy Issues and Status of Negoti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http://www.state.gov

James Petras (2004), "The politics of imperialism: Neoliberalism and Class Politics in Latin America", http://www.rebelion.org

Marta Harnecker (2004), "After the Referendum: Venezuela Faces New Challenges", Mothly Review, Vol. 56, No. 6.

Michael Albert (2005), "Venezuela's Path", ZNet, http://www.zmag.org

Parker, Dick. (2005). "Chávez and the Search for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Latin American Perspective 32*, no. 141 (March): 39–50

Ramírez Valencia (2005), "Who are Chavistas?" *Latin American Perspective 32*, no. 142 (May): 79–97.

Richard Lapper (2005), "Venezuela and the Rise of Chavez: A Background Discussion Paper", http://www.cfr.org

Tinker-Salas, Miguel. (2005) "Fueling Concern: The Role of Oil in Venezuela." **Havard International Review 26,** no. 4 (Winter): 50-54.

논문투고일자: 2009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자: 200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11일